

대학생 드라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교수칼럼



김종수
한국어학 교수

지난 1월에 학과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 전공연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학생들과 요즘 즐겨보는 TV드라마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친구>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즐겨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연수지인 미국에서도 <SKY캐슬>을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러워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이 드라마를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열광적으로 시청했다고 한다. 입시 관문을 통과할 때 겪었던 자신의 처지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극중 인물들의 갈등을 즐겼을 대학생 시청자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TV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아침드라마’, ‘저녁드라마’,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금토드라마’, ‘주말드라마’라는 이름에서 보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드라마가 나온다. 황금시간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파 방송국,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국에서 경쟁적으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골라볼 수 있는 드라마의 유통과정도 폭발적인 드라마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매일같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TV 드라마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는 평범한 상대를 만나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는 재벌 상속인이 있고, 정의를 위해 상명 하복의 검찰 조직에 반기를 든 검사, 영리 추구에 혈안인 병원의 경영진과 갈등하며 생명을 구하는 의사, 조직폭력배와 싸우며 진실을 밝혀내는 국정원 출신 신부도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서사적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되며 마련이지만 대중들에게 ‘저런 인물이 되어보고 싶다’는 잠재된 심리를 자극한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제공하는 화려한 소비 행위를 보면서, 악당을 제



TV드라마에 대학생 주인공은 힘든 대학생 활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패기있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길.

암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선망하면서 대중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일을 허구적 세계의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하게 된다. TV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는 대중들의 욕망이 투사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젠가부터 대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드라마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은 21세기 한국 대중들에게, 특히 대학생이 되려는 10대들에게 ‘대학생’이 큰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막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루는 드라마들은 컬리TV가 대중화되고 민주화 운동이 결실을 맺어가던 1980년대 후반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사랑이 꽂피는 나무(1987~91)>와 <내일은 사랑(1992~94)>이 정치적 색채를 제거하고 사랑 이야기에 집중한 대학생의 일상을 그려내면서 초·중·고교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어린 시청자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멋진 대학생이 되겠다는 기대와 꿈을 키웠다. 뒤를 이어 <남자 셋 여자셋(1996~99)>이나 <논스톱(2000~2005)> 시리즈는 시트콤 형식으로 대학생의 일상을 재미있게 그려냈다. 대학을 목표로 힘들고 어려

운 시간을 보내는 10대들에게 드라마 속 대학은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의 일상을 다루는 드라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2013년 방영된 <응답하라 1994>가 전 세대에 걸쳐 사랑을 받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응답하라 1994>는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의 생활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에 열광하던 10대와 대학생들은 20년 전 대학생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의 대학생 활을 엿보며 좋아했던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들의 삶은 대학생이 되려는 10대들이나 대학생들 스스로에게도 흥미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교생들의 방황과 갈등, 꿈과 희망을 그린 <학교> 시리즈가 2017년 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방영되었고, 2018년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인 <펜 뽀뽀걸즈>가 만들어졌음을 염두에 두니면,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서 ‘대학생’과 그 배경이 되는 대학은 대중들에게 흥미를 잃었다.

대학생이 되기 위해 입시 지옥을 참고 견디면서도 정작 대학생의 일상이나 대학 생활이 매력적이지 않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대학 생활이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치부되며, 대학

생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을 듣느라 고통스럽고,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느라 잡 잘 시간도 많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조별 발표 준비하는 것도 견뎌야 한다. 취직 걱정을 하느라 연애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이라면 공간은 입시를 위해 펼쳤던 열정을 보상받을 만한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낼 수 있는 힘이 대학생에게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일망정 현실을 직시하며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 입학한 후 일년을 보내고 나서 잊는다는 ‘대2병’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의 기회이다. 관리되는 시간의 효율성을 좇지 않고 낭비되는 시간의 여유로움을 느껴보며 대학생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를 얻는다면 사랑의 낭만으로 점철되었던 그동안의 TV 드라마 속 대학생 주인공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TV 드라마의 새로운 대학생 주인공은 “이것이 운명이었더니? 그렇다면 한 번 더!”라고 말한 나체의 외침처럼 패기 있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길 기대해 본다.

참여마당

배종현 (언론정보학 2015)



21세기 페스트

세상은 인종, 나라, 문화 등 수많은 요소들로 이뤄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다른에는 귀천이 없으나 모든 다양성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불편함 없이 읽을 수 있는 구절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불편한 글이 될 수도 있기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과연 모든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흐름을 보면 근거와 해결책이 없는 주장만이 난무하고 진전 없는 공감만이 뒤를 잇는 경우가 많다. 논리적인 근거로 도출된 해결책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논점 흐리기와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인해 또 다시 진흙탕싸움이 되어버리고 만다.

현재의 사회는 이런 자화상을 비추고 있다. 옳고 그름을 기준짓는 잔재조차도 ‘다양성’을 변명으로 그릇된 폐해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주제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21세기 페스트인 ‘인포데믹스’에 빙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와 실제로도 꽤 닮아 있다.

페스트는 중세 유럽 인구의 2/3를 없애버린 전무후무한 전염병이자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병이라 불린다. 그런데 그 시기의 사료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들게 된다. ‘굳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했는가?’ 전례 없는 전염병이라곤 해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근원은 당시 유럽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삼포제라는 농업 기술을 사용한 당시 유럽에선 거름이 필요 없었고 자연스레 화장실이라는 개념조차 발달하지 않았다. 동물과 인간의 분뇨가 거리에 방치된 도시는 전염병이 퍼지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다. 또한 당시 유럽은 과학보다는 신학을 중요시했다. 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비과학적인 치료법이 만연해있던 사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만을 확산시켰다. 궁지에 몰린 인간은 가장 본능적인 무지인 광기와 미신으로 뒤덮여 유대인을 학살하고 산 사람을 불태우는 등 카오스를 만들어내었다.

다시 21세기로 돌아와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다양성의 평등을 선물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불행하게도 ‘그릇된 것도 자유롭게 말하고 존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숨어있었다. 불명확한 정보나 비논리적 주관이 마치 진실이고 객관인 마냥 둔갑하여 정보의 공간이 비위생적으로 변해버렸다. 암에 나타난 사람들이 정보의 시비를 판가름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곤이곧대로 맹신해버린 무지로 인해 정보의 페스트가 창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해결책을 망각한 논쟁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광기에 싸우거나 잘못된 신념을 맹신하며 사회적 자멸을 택하게 된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모든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가?’

흑사병은 결국 인간이 페스트에 적응하여 자연적으로 소멸됐다. 모든 사람이 병들어 죽어버린 후 내성이 생긴 사람만이 살아남은 사회,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사회의 청사진은 아니라고 본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대학주보 68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우리학교 1~2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전형 일정

- 지원서 작성 : 2월 27일 수요일 ~ 3월 9일 토요일
- 면접 일시 : 3월 11일 월요일(서울), 3월 12일 화요일(국제)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전형 방법

- 1차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 개별 면접 진행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 창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주요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주 1회(월) 주간회의 참여
- 발제 아이템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활동혜택

- 장학금 지급(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연락 : 010-4004-0653(이후승 편집장)
- 이메일 : khunews@khu.ac.kr
- 전화 : 02-961-0095(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국제캠퍼스 편집실)

201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공고문

201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교직이수를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2019학년도 3월 현재 교직이 설치된 학과 내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2. 접수기간 : 2019.03.04.(월), 09:00 ~ 03.07.(목), 17:00까지

3. 접수처 : 각 학과(전공) 사무실

4. 제출서류 : 교직이수 희망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전공별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5. 신청절차

교직과 홈페이지(<http://education.khu.ac.kr>) 참조
(세부내용은 캠퍼스별 공지사항 참조)

6. 유의사항

- 1) 2학년 복학예정인 학생은 신청기간 이내에 복학절차를 완료하고 교직과정이수 정자 신청을 해야 함
-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됨
-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인성, 적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접 및 인·적성 검사 시 신종을 기하기 바람

7. 선발정원

1) 서울캠퍼스 : 총 78명 2) 국제캠퍼스 : 총 51명

※ 선발학과 및 선발정원 세부내역은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교직과정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직과(02-961-9668) 및 국제캠퍼스 교무처 교직과(031-201-30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 교무처 교직과